

■ 2025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4년 12월 3일 (화)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4년 12월 19일 (목) 09:00~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전지영, 정성진, 정효성, 오영주, 원일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전통분야 지원예산은 521,000,000원으로 17개 단체가 신청하고 이 중 5개 단체가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하고 우수한 공연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공연예술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나름의 역사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는 공연예술제에 대한 '개별지원 유형'(이하 개별유형)과 함께, 올해는 통합적 축제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통합축제 유형'(이하 통합유형)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통합유형은 2025년 7~8월 시기에 개최 가능한 축제들을 통합하여 개별 축제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전체적인 통합적 운영을 통해 홍보, 축제브랜딩 등을 강화하는 공연예술제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통합유형에 대해 아직 신청단체들의 이해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개별유형에 지원하더라도 통합유형 참여로 변경가능한지 선택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의는 신청 예술제의 사업수행 역량(기존 사업수행 이력 및 체계적 조직구성 포함), 사업계획의 충실성(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로서 파급력과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예술가가 모두 공감하고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향하는가, 전통예술분야로서 양식적 특성에 충실한가(전통예술분야에 맞는 예술제 수행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는가), 관행적 사업수행을 넘어 보다 역동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술제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공연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콘텐츠를 갖고 구체적이고 유기적 구성맥락을 제시한 예술제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전통예술분야의 축제로서 역동적 진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전통예술은 애초부터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술 양식이기 때문에 전통예술분야 공연예술제는 독자적 지역성을 갖는 축제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대표예술제의 범주를 넘어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이름에 맞게

내용적, 범주적 확장성의 비전을 제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밀착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중시하였습니다. 폐쇄적으로 닫혀있는 지역성에 안주하기보다는 고유한 역사성과 동시대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축제기획을 기대했습니다. 개별유형 외에 통합유형의 가능성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사고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총 17개 신청 예술제 중에 1차 서류심의를 통해 10개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5개 예술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인터뷰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신청단체의 애정과 열정은 확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하는 과정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심사 역시 보다 많은 예술제에 지원해줄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삭감하지 않고 충분히 지원해주고자 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 예술제에는 사업규모와 예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예술분야는 본질적으로 지역적 고유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 전통음악이나 전통연희 등은 모두 지역마다 역사적 차이와 문화적 배경 등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서 비전을 갖는 것이 쉽지 않고, 확장된 영역의 비전을 지향하다보면 오히려 지역적 고유성과 지역밀착성 혹은 향토성이 희석되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예술분야의 공연예술제는 지역의 역사성·고유성에 충실한 축제들이 지역성에 너무 폐쇄적으로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성을 담보로 하여 당당하게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예술제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연예술제는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측면만큼이나 시민의 향수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자들의 예술적 성취욕망만큼 시민 참여와 지역문화와의 상생을 향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기를 바라며, 보다 치밀하고 긴장감 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전통예술로서 대중적 이해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개별 예술제에 대한 1회성 지원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과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통합축제의 야심찬 기획이 보다 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